

# 성서 번역과정에 나타난 한일 공통 한자명사의 변화 추이\*

— 마가복음 번역사를 중심으로 —

안 증 환\*\*

(e-mail : ajw7340@hanmail.net)

## < 목 차 >

- |                    |                             |
|--------------------|-----------------------------|
| 1. 들어가기            | 3. 역본에 따른 공통 한자명사의 변화       |
| 2. 비교자료별 조사방법 및 결과 | 3.1. 이수정역과 명치역에서 구역과 대정역으로  |
| 2.1. 이수정역과 명치역     | 3.2. 구역과 대정역에서 개역개정과 신공동역으로 |
| 2.2. 구역과 대정역       |                             |
| 2.3. 신공동역과 개역개정    | 4. 나가기                      |

키워드 : 对照研究(contrastive study), 共通漢字名詞(nouns using common Chinese characters), 音讀漢字語(Chinese-character words read with its Chinese-derived pronunciation), 訓讀漢字語((Chinese-character words read with its Japanese reading), 通時的考察(diachronic consideration), 語種(types of words by their origin)

## 1. 들어가기

본 연구의 목적은 신약성서 마가복음의 번역사를 통해 한국어와 일본어 사이에 공유되는 한자명사의 양적 변화를 추적해 보는 데에 있다. 한일 양국은 동일하게 한자문화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상당량의 한자명사를 공유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으나, 동일한 비교자료를 근거로 통시적 관점에서 양적 변화의 과정을 추적한 선행연구는 없어 보인다. 다만 현행 한국어 한자어회에 대한 분석으로는 박영섭(1995)이 있다. 한편 본고에서 말하는 한자명사란 어종과 관계

\* 이 논문은 2017년 한남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 한남대학교, 교수, 일본어학



- 1차 자료: 중국어 성서 ‘브리즈먼 킬버슨역’(이하 ‘BC역’, 1864),  
한국어 이수정의 ‘마가복음 언해’(이하 ‘이수정역’, 1885)와 일본어  
明治訳(1887)<sup>3)</sup>,
- 2차 자료: 한국어 구역(旧訳 1911)과 일본어 大正訳(1917)
- 3차 자료: 한국어 개역개정역(1998)과 일본어 新共同訳(1988)

본고의 연구방법은 이렇다. 2장에서는 비교대상 성서별로 공통되는 한자명사의 양적변화를 고찰한다. 우선 한국어 이수정역과 일본어 명치역에 대한 1차 조사는 두 가지로 갈라진다. 하나는 저본인 중국어 BC역을 포함한 세 개의 성서에서 공통되는 한자명사에 대한 조사이고, 또 하나는 중국어 저본과는 다르나 명치역과 이수정역에서만 공통으로 출현하는 한자명사이다. 이렇게 추출된 한자명사들에 대해서는 어종분류를 시도했다. 어종분류는 주로 일본어와 관계되지만 그 변화추이를 살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2차 자료와 3차 자료의 조사방법도 동일하다. 이렇게 각각의 비교자료에서 공통된 한자명사가 조사되면, 전회(前回)에서 추출된 것과의 비교과정을 통해 양적 변화와 어종의 변화양상을 고찰했다. 3장에서는 두 차례의 개역과정에 나타난 한자명사들의 변화양상을 추적해 보았는데,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공통된 한자명사의 경우 전회의 것과 새로 합류된 것을 분류해 보았고, 이어서 전회의 공통 한자명사군에서 제외된 것들의 변화와 새로 공통 한자명사군에 추가된 것들의 출처를 추적하는 방식이다. 조사대상 한자명사는 2자(字) 이상의 명사로 제한했으며, 인명 지명 등 고유명사나 수사 등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 2. 비교자료별 조사방법 및 결과

### 2.1. 이수정역과 명치역

이수정역과 명치역이 공유하는 한자명사에는 저본인 BC역의 한자어를 그대로 수용한 것들이 상당수 존재한다. 한국과 일본 모두 같은 한자문화권에 속해

3) 일본어 성서 ‘明治訳’의 완간은 1887년이지만, 본고에서 비교자료로 선정한 ‘마가복음’의 최초 번역은 해본에 의해 1872년이었음을 밝혀둔다. 門脇 清·大柴 恒(1983), p107

있기 때문에 중국어가 원본이거나 저본인 것들의 번역에서 원본(저본) 속의 한자어가 번역서 안에 그대로 수용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아래 예문에서 ‘福音’이나 ‘故郷’과 같은 경우이다.

(2) 云期已届矣神国迹矣爾宜悔改信福音(1:15)

이르시되<sup>의약</sup>期約이이<sup>신국</sup>미이르<sup>신국</sup>릿고神국이갓가온지라너의는맛당이<sup>복음</sup>뉘웃고곳쳐福音  
을밋을지어다  
期<sup>とき</sup>は<sup>みて</sup>滿<sup>ちかづ</sup>り神<sup>くひ</sup>の<sup>あらた</sup>国<sup>ふくいん</sup>は<sup>しん</sup>近<sup>め</sup>けり爾曹悔改めて福音<sup>しん</sup>を<sup>しん</sup>信<sup>ぜ</sup>よ

(3) 耶蘇謂之曰預言者於故郷於宗族於室家而外莫不尊焉(6:4)

耶蘇<sup>야슈쓰</sup> | 일너갈오사되<sup>예언자</sup>預言者를<sup>고향</sup>故郷과일가와집안외의는존숭(尊崇)히지안인데  
업느니라<sup>히</sup>니라  
イエス彼等に曰けるは預言者はその<sup>ふるさと</sup>故郷その<sup>しんせき</sup>親戚その<sup>いへ</sup>室家の<sup>ほか</sup>外に<sup>おいて</sup>於<sup>たふと</sup>は<sup>たふと</sup>尊<sup>ば</sup>れ<sup>ざる</sup>こと  
なし

이처럼 이수정역과 명치역에 공통으로 존재하는 한자명사 가운데 중국어 BC역 속의 한자어를 그대로 차용한 것은 위의 ‘福音’ ‘故郷’을 포함해 64개가 조사되었다. 다음 (4)에 제시된 단어들이다.

- (4) 褻瀆, 故郷, 新約, 貪婪, 地震, 生命, 苟合, 親屬, 蝗虫, 姦淫, 凶殺, 沒藥, 香膏, 父母, 迫害, 祈禱, 声名, 貨財, 姊妹, 海緘, 詭計, 盜竊, 墓間, 鄉村, 遺傳, 苦難, 患難, 葡萄園, 十字架, 除酵節, 福音, 聖靈, 備節日, 祭司, 預言者, 安息日, 聖書, 罪人, 會堂, 使徒, 兄弟, 嗣子, 偽善者, 奧義, 長老, 地獄, 稅吏, 上座, 青草, 緘默, 芥種, 富者, 磽地, 颶風, 勇者, 惡念, 四方, 默然, 天地, 安否, 日夜, 証拋, 野蜜, 血漏, 계 64개

다만, 앞의 예문(2)(3)에서 보듯이 한국어와 일본어는 중국어 명사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명백한 차이를 갖고 있다. 즉 한국어는 ‘福音’과 ‘故郷’을 모두 음으로 수용해서 ‘복음’ ‘고향’으로 읽고 있으나, 일본어에서는 전자는 「ふくいん」으로 음독하는데 대해 후자는 「ふるさと」로 훈독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로 인

해 한국어와 일본어에 수용된 중국어 명사의 어종이 두 언어에서 달라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아주 특수한 경우로, 한국어 이수정역에서도 BC역의 한자어가 혼독으로 수용된 예가 발견된다. 다음 예문 (5)에서 한자어 ‘野蜜’을 ‘드을꿀’로 읽고 있는 것이 「のみつ」로 혼독한 일본어와 마찬가지로 그에 해당한다.

(5) 夫約翰衣駱毛腰束皮帶食則蝗虫野蜜(1:6)

디저<sup>요한네스</sup>約<sup>약</sup>翰<sup>한</sup>는駱<sup>라크다</sup>駝<sup>타</sup>의털을입고허리의가족<sup>키코시</sup>씨를씩고먹는거슨<sup>카하오비</sup>蝗<sup>이나가</sup>虫<sup>의みつ</sup>과野<sup>의</sup>蜜<sup>의みつ</sup>이러라  
(ヨハネは駱駝の毛衣を着腰に皮帶をつかね蝗虫と野蜜を食へり)

물론 이러한 예는 이수정역(1885)이 중국어 저본의 한자표기를 그대로 살린 ‘언해(諺解)’이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동일한 ‘언해’이지만 수정본 1887년 판에서는 한글로만 표기되면서 혼독어는 한국어에서 자연스럽게 자취를 감춘다. 예문(6)이 이수정 수정본의 인용문이다.

(6) 대더요한은약<sup>안</sup>디<sup>안</sup>의털을입고허리에가족<sup>키코시</sup>씨를씩고먹는거슨<sup>카하오비</sup>황<sup>이나가</sup>충<sup>의みつ</sup>과<sup>의みつ</sup>들<sup>의みつ</sup>꿀<sup>의みつ</sup>이러라

한편 이수정역에서는 저본의 ‘安息日’이 ‘사밧트일’로 표기되면서 「あんそくにち」로 음독하고 있는 명치역과 차별을 보여준다.

(7) 是以人子亦為安息日之主矣(2:28)

이러<sup>인</sup>호<sup>주</sup>므로써人<sup>사밧트</sup>子<sup>일</sup>도또<sup>주</sup>호<sup>주</sup>안<sup>주</sup>息<sup>주</sup>日<sup>주</sup>의主<sup>주</sup> | 되느니라  
然<sup>사레</sup>ば<sup>히타</sup>人<sup>코</sup>の子<sup>안</sup>は<sup>そ</sup>안<sup>そ</sup>息<sup>くに</sup>日<sup>ち</sup>にも主<sup>しゆ</sup>たる也

이 ‘사밧트일’은 영어 ‘sabbath’를 한글표기한 것으로, 이러한 표기는 이수정역에서 ‘耶蘇’ ‘耶路撒冷’처럼 인명이나 지명 등 고유명사의 번역과정에서 나타난다. 이러한 특수한 예 몇 개를 제외하면 이수정역에서 한자어는 모두 음독으로 실현된다. 그러나 일본어 명치역의 한자어는 다르다. 이미 언급한 대로 일본어는 저본의 한자어를 음독해서 그대로 수용하는 음독어와 혼독함으로서 저본 속 한자어의 의미를 일본어로 해석하는 성격을 띠는 혼독어로 나뉜다. 때문

에 일본어에서 한자로 표기된 명사의 어종에는 한자어와 일본어 고유어가 혼재되어 있으며, 읽는 방식에 따라 어종이 중국어로 분류되는 음독어와 일본어 고유어로 분류되는 훈독어 그리고 음독과 훈독이 혼합된 혼종어로 구분된다. 그러한 관점에서 앞에서 조사된 64개의 어휘에 대한 일본어 쪽의 어종분류를 보면, 음독어가 29개, 훈독어가 30개 그리고 혼종어 5개로 분류된다. 다음이 각각의 어종에 속하는 어휘들이다<sup>4)</sup>.

- (8)a. 음독어 : 新約, 貪婪, 地震, 姦淫, 苟合, 親屬, 凶殺, 沒藥, 姉妹, 盜竊, 十字架, 福音, 聖靈, 祭司, 預言者, 聖書, 會堂, 使徒, 兄弟, 偽善者, 奧義, 地獄, 惡念, 四方, 默然, 天地, 日夜, 安息日, 証拠, 29개
- b. 훈독어 : 褻瀆(けかし), 故郷(ふるさと), 生命(いのち), 蝗虫(いなご), 香膏(あぶら), 父母(ちちはは), 迫害(くるしみ), 祈禱(いのり), 声名(きこえ), 貨財(たから), 海絨(うみわた), 詭計(たばかり), 墓間(はかば), 鄉村(むらむら), 遺傳(つたへ), 苦難(なやみ), 患難(なやみ), 除酵節(たねいれぬばんのいはひ), 備節日(そなへび), 罪人(つみびと), 嗣子(あとつぎ), 長老(としより), 稅吏(みつぎとり), 青草(あをくさ), 緘默(しづまれ), 芥種(からしだね), 富者(とめるもの), 颶風(おほかせ), 勇者(つよきもの), 問安(あいさつ), 30개
- c. 혼종어 : 葡萄園(ぶどうばたけ), 血漏(ちろう), 野蜜(のみつ), 磽地(いしち), 上座(かみぎ), 5개

한편 두 나라의 공유한자어에 훈독어를 넣어야 하는가에 의문이 있을 수 있지만, 한자표기라는 시각적 자체(字体)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공유한자어에 포함시키는 것이 본고의 취지에 부합된다. 그 단적인 예가 (9)에서 보는 BC역의 ‘除酵節’이라는 한자어다. 이것은 이수정역에서는 ‘제효절’로 음독되고 명치역에서는 「たねいれぬばんのいはひ」로 훈독되고 있으나, 한자표기 ‘除酵節’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공유한자어에 넣었다.

- (9) 除酵節首日殺踰越節羔時其門徒謂耶蘇曰爾欲我往何處預備致爾食踰越節筵乎 (14:12)

4) 일본어 명치역과 대정역의 훈독어 및 혼종어에 대해서는 이해를 위해 「振<sup>リ</sup>仮名」를 표기해 두기로 한다.

たおいれぬばんのいはひ はじめ ひ すぎこし びつ ころ いひ  
 除 酵 節の首の日すなはち逾越の羔を殺すべき日弟子イエスに曰けるは逾越の  
 しよく いちかた ゆき そな  
 食を何処へ往て我儕備ふべき乎  
 せい じょう せつ だいいち 逾越節에 염소를 잡을 때에 제 자 | 耶蘇 기엿즈와 7로 되네 날다려어  
 준 비  
 되가서 準備 ㅎ여닐노 ㅎ여금 逾越節筵을 지니게 ㅎ라 ㅎ노노

다음으로 BC역의 한자어와는 다르나, 이수정역과 명치역에만 공통으로 등장하는 한자명사들을 보기로 한다. 예문 (10)의 ‘証’과 ‘証拠’ 같은 경우다.

(10) 祭司長自裂其衣曰我儕何用別証(14:63)

祭司長이 손으로 제 옷을 찢으며 7로 되우리 다른 証拠 ㅎ여무엇 ㅎ리요  
 こ おい さいし をさ ころも さき いひ われら また しょうこ ちゆめ  
 是に於て祭司の長その衣を裂て曰けるは我儕なんぞ復ほかに 証拠を求んや

이렇게 발견된 한자명사는 (11)에 제시된 6개로, 여기에는 ‘駝’이 ‘駱駝’로 실현되는 것처럼 저본에서 하나의 한자로 의미가 실현되는 단어들의 번역과정에서 많이 나타났다. 그리고 ‘野蜜’을 ‘드을꿀’로 읽었던 것처럼 이수정역에서 혼독한자어가 또 하나 발견된다. 저본의 ‘駝’를 명치역과 이수정역 모두 한자어 ‘駱駝’로 표기하고 있는데, 이수정역에서는 이것을 ‘약디’로 읽고 있다(예문5 참고). (11)은 일본어의 관점에서 이들 6개의 한자명사를 어종에 따라 분류해 놓은 것이다. 괄호 안의 한자어가 BC역 속의 단어다.

- (11)a. 음독어 : (駝)駱駝, (門徒)弟子,
- b. 혼독어 : (衣)衣服, (盜)盜賊, (世)世上, (中心)心中,

이렇게 해서 이수정역과 명치역에서 추출된 공통 한자명사는 71개로 확인되었다. 수용방식의 차이로 인해 한국어와 일본어에서 이들 한자명사의 어종은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이수정역에서는 ‘野蜜(드을꿀)’과 ‘駱駝(약디)’를 제외한 70개가 음독어였던 반면에, 일본어는 72개 중 32개가 음독어, 34개는 혼독어 그리고 5개는 혼종어로 다양하게 수용되고 있었다.

## 2.2. 구역과 대정역

한국어 구역과 일본어 대정역은 모두 번역의 질적인 면에서 이수정역이나 명치역과는 차별된다. 완벽한 번역은 아니겠지만 양쪽 다 잘된 번역으로 평가된다. 번역어도 저본의 한자어 차용에서 벗어나 각각의 언어문화에 맞는 새로운 것을 찾는 과정에서, 공유하는 한자명사가 양적으로는 줄어들지만 새롭게 편입되는 것도 보인다. 가령 예문 (12)의 ‘新郎’이나 (13)의 ‘屍體’는 괄호 안에 제시된 이수정역과 명치역에서는 일치하지 않던 것들이었다.

(12) (惟將來之日新娶者別之去斯時必禁食矣) (2:20)

신랑이 리별홀 날이 니를터이니 그 날에는 금식홀지니라

(다만將來날에 장가든者 | 離別호고같이씩에는반다시飲食을禁호리니)

されど新郎をとらるる日きたらん、その日には断食せん。

(のちかれら新娶をとらるる日きたらん其日には断食すべき也)

(13) (其門徒聞之則至取屍葬於墓) (6:29)

요한의 데즈들이 듯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스호니라

(제자 | 듯고와서屍體를가져다가墓의葬호니라)

ヨハネの弟子たち聞きて來り、その屍體を取りて墓に納めたり。

(ヨハネの弟子等この事を聞て來り其屍體を取て墓に葬りぬ)

예문(12)에서 보듯이 ‘新郎’은 저본의 ‘新娶者’를 일본 명치역에서 먼저 번역했던 한자명사였고, (13)의 ‘屍體’는 한국 이수정역에서 먼저 번역어로 채택한 한자명사였다. 이것들이 1910년대 두 나라의 성서가 구역과 대정역으로 개역되는 과정에 공유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직접 서로를 참고한 결과라기보다 동일한 한자문화권에 속해 있다는 문화적 배경에 따른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어떻든 양쪽 모두 성서의 개역과정에서 구역과 대정역에 공유하는 한자명사는 이수정역과 명치역의 72개에서 다음의 (14)에 제시된 39개로 현저히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14) 新郎, 生命, 患難, 血淚, 能力, 弟子, 智惠, 貴人, 屍體, 誠命, 殺人, 姦淫, 苦難, 長老, 十字架, 父母, 福音, 姉妹, 榮光, 葡萄園, 農夫, 復活, 犧牲, 上座, 寡婦, 地震, 四方, 天地, 詭計, 讚美, 罪人, 強盜, 証拋, 証人, 葡萄酒, 會堂, 安息日, 沒藥, 兄弟, 계 39개

한편 한국어 성서는 표기가 한글전용으로 되면서 훈독어가 없어지지만, 한자어를 음과 훈 양쪽으로 수용한 일본어의 경우는 명치역에서 본 대로 한자표기명사의 어종이 한자어인 음독어와 고유어인 훈독어 그리고 혼종어로 구분된다. 대정역의 한자표기 명사 39개를 어종에 따라 분류한 것이 다음의 (15)로, 음독어와 훈독어의 분포가 유사했던 명치역과는 달리 음독어의 분포가 크게 확장된 것을 보게 된다.

- (15)a. 음독어 : 弟子, 智惠, 貴人, 姦淫, 長老, 十字架, 福音, 姉妹, 榮光, 農夫, 上座, 地震, 四方, 天地, 讚美, 強盜, 証拋, 証人, 葡萄酒, 會堂, 安息日, 沒藥, 兄弟, 23개
- b. 훈독어 : 新郎(はなむこ), 生命(いのち), 患難(なやみ), 能力(ちから), 屍體(しかばね), 誠命(いましめ), 殺人(ひとごろし), 苦難(くるしみ), 父母(ちちはは), 復活(よみがへり), 犧牲(いけにへ), 寡婦(やもめ), 詭計(たばかり), 罪人(つみびと), 14개
- c. 혼종어 : 血淚(ちろう), 葡萄園(ぶどうぞの), 2개

### 2.3. 신공동역과 개역개정

한국어 개역개정과 일본어 신공동역은 구어체로서 문어체인 구역이나 대정역과 구별되고, 이 두 그룹의 성서에는 7,80년이라는 시간적 차이가 존재한다. 공유하는 한자명사의 양은 개역개정과 신공동역에서 다시 급증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러한 변화는 문어역과 구어역이라는 문체의 차이보다는 7,80년이라는 시간적 간격이 반영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다. 다음의 예문 (16)(17)은 이들 개역과정에서 한자명사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으로, 구역과 대정역을 나타내는 괄호 안의 예문에서 일치하지 않던 번역어들이 개역개정과 신공동역에서는 공유하는 한자명사로 바뀐 것을 알 수 있다.

(16)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13:32)

(다만 그 날과 그 때는 아는 자가 없고 하늘에 잇는 턴스도 아지못하고 아들도 아지못하되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その日、その時は、だれも知らない。天使たちも子も知らない。父だけがご存じである」

(その日その時を知る者なし。天にある使者たちも知らず、子も知らず、ただ父のみ知り給ふ。)

(17) 少女はすぐに起き上がって、歩きだした。もう十二歳になっていたからである。それを見るや、人々は驚きのあまり我を忘れた。(5:42)

(直ちに少女たちて歩む、その歳十二なりければなり。彼ら直ちに甚く驚きおどろけり。)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열두 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계집 으희가 곧 니러나 거르니 째에 나이 열두살이라 못사람이 곧 놀라고 심히 이상히녀이거늘)

괄호 안의 구역과 대정역이 예문과 비교해 보면 (16)의 ‘天使’는 한국어 구역에서, (17)의 ‘少女’는 일본어 대정역에서 먼저 생성되었음을 알게 된다. 이런 과정을 걸쳐 두 성서에서 공유하는 한자명사는 대정역과 구역의 39개에서 (18)의 74개로 급격히 확장된다.

(18) 福音, 使者, 準備, 聖靈, 天使, 兄弟, 會堂, 權威, 四方, 中風, 冒瀆, 弟子, 權能, 永遠, 姊妹, 祕密, 迫害, 誘惑, 先生, 地方, 會堂長, 少女, 故鄉, 智惠, 親戚, 保護, 機會, 使徒, 幽靈, 安心, 市場, 預言, 姦淫, 貪欲, 盲人, 預言者, 長老, 十字架, 地獄, 創造, 父母, 祝福, 異邦人, 榮光, 強盜, 農夫, 真理, 税金, 復活, 唯一, 生活費, 全部, 地震, 飢饉, 天地, 主人, 食事, 香油, 準備, 約束, 感謝, 讚美, 証言, 証人, 死刑, 要求, 滿足, 敬礼, 沒藥, 海綿, 建物(たてもの), 罪人(つみびと), 洗礼(バプテスマ), 安息日(あんそくび),            계 74개

(18)의 한자명사를 (14)의 구역과 대정역에서 보여준 것들과 비교했을 때, 양적 증가만이 아니라 또 하나의 두드러진 차이가 발견된다. (18)에서 보듯이 「建物」 등 4개를 제외한 나머지 72개가 모두 일본어에서 음독어로 분류되면서 한국어와 어종까지 일치하는 것들이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故郷」 「父母」 「復活」 등 대정역 등에서 혼독어였던 상당수의 한자어가 음독어로 변환된 데에서 기인하는 원인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상으로 이수정역과 명치역, 구역과 대정역, 그리고 개역개정과 신공동역에서 두 언어가 공유하는 한자명사의 양적 변화와 일본어 한자명사가 갖는 어종의 변화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세 그룹의 성서 마가복음에서 두 언어가 공유하는 한자명사는 72→39→74개로 커다란 변화를 보였다. 그리고 이렇게 변화하는 과정에서 한국어와 공유하는 일본어 한자명사의 어종이 음독어 중심으로 급격히 확장되어간 것을 볼 수 있었다.

### 3. 역본에 따른 공통 한자명사의 변화

3장에서는 이수정역과 명치역에서 구역과 대정역으로, 또 구역과 대정역에서 개역개정과 신공동역으로 각각 비교대상 성서의 역본이 바뀌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통된 한자명사의 변화양상을 고찰했다. 각각의 조사내용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새로 바뀐 역본에서 공통된 한자어휘의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전회(前回)의 역본에 있던 것들과 새로 편입된 공통 한자어를 구분해 보았다. 둘째, 전회의 공통 한자명사 가운데 새 역본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제외된 것들은 어떻게 변했는가를 한국어와 일본어 각각으로 나누어 고찰했다. 마지막으로 새로 추가된 공통한자어의 경우, 어느 쪽 성서에서 먼저 발견되는가를 추적해 보았다. 이하 역본 변경에 따른 변화양상을 정리한다.

#### 3.1. 이수정역과 명치역에서 구역과 대정역으로

가. 공통 한자명사 39개의 출처

다음의 (표1)은 이수정역과 명치역이 구역과 대정역으로 바뀌고 난 뒤에 확인된 두 성서의 공통 한자명사 39개의 출처다.

(표1) 이수정역과 대정역의 공통 한자명사 출처5)

이수정역 및 대정역에 있던 공유한자명사	구역과 대정역에서 추가된 공유한자명사
地震, 沒藥, 姉妹, 兄弟, 十字架, 福音, 安息日, 會堂, 弟子, 姦淫, 四方, 天地, 証拠, 上座, 長老, 生命, 父母, 詭計, 患難, 罪人, 血漏, 葡萄園, 22개	智惠, 貴人, 榮光, 農夫, 讚美, 強盜, 証人, 葡萄酒, 新郎, 能力, 屍体, 誠命, 殺人, 苦難, 復活, 犧牲, 寡婦, 17개

(표1)에서 보듯이 22개는 이수정역과 대정역에서도 공유했던 한자명사였고, 나머지 19개는 역본이 바뀌면서 새로 추가된 것들이다. 한국어 성서는 구역성서부터 한글전용 표기가 되기 때문에, 이하 어종 확인을 위한 한자 읽는 방법은 일본어에 국한하기로 한다. (표1)의 「生命」처럼 밑줄 하나가 있는 한자명사는 일본어 훈독어를 가리키고, 「血漏」처럼 밑줄 둘이 있는 것은 음독과 훈독이 혼합된 혼종어에 해당한다. 주목하고 싶은 것은 예문(19)의 「長老」로, 명치역에서 훈독어 「としより」였던 것이 대정역에서 음독어 「ちやうらう」로 바뀐다. 이것은 한자어가 일본어에 정착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된다. 즉, 훈으로 수용가능한 한자어는 우선 훈독어로 수용한 뒤에, 그 한자어를 그대로 정착시킬 수 있는 단계가 되면 음독어화하는 것으로6), 이러한 것은 일본에서 만들어진 한자조어가 정착될 때에도 적용된다7).

(19)かれら<sup>また</sup>又エルサレム<sup>いた</sup>に到る。イエス<sup>みや</sup>宮<sup>うち</sup>の内<sup>あゆ</sup>を歩<sup>たま</sup>み給ふとき、祭司長<sup>さいしちやう</sup>・学<sup>がくしや</sup>者<sup>ちやうらう</sup>・長老たち<sup>ちやうらう</sup>  
御許<sup>みもと</sup>に來りて、

5) (표1)에서 한 줄 밑줄은 일본어의 훈독한자어(고유어)이고 두 줄 밑줄은 일본어 혼종어를 가리킨다. 이것은 (표2)에도 적용된다.

6) 예외로 보이는 것이 있었다. 대정역에서 「患難」은 「なやみ」로 훈독어인데, 명치역에 음독어 「くわんなん」(4:17)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일한 명치역에서 훈독어 「なやみ」(13:19)가 있기 때문에 음독어로의 수용이 아주 예외적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然ども己に根なきが故ただ暫時のみ後道の為に患難あるひは迫害に遇ときは忽ち礙く者なり(4:17)

其日に患難あらん此の如き患難は神の物を創造たまひし開闢より今に至るまで有ざりき亦後にも有じ(13:19)

7) 현재의 일본어 음독어 「關係」 「干与」 등은 일본에서 만들어진 한자조어로, 대정역에서 훈독어로 생성되었었다. 「なんぢは此の事に關係なく干与なし、なんぢの心、神の前に正しからず。」(使8:21)

(彼等<sup>かれら</sup>またエルサ렘<sup>에라사렘</sup>に<sup>いた</sup>至<sup>리</sup>りイエ스<sup>미야</sup>殿<sup>아리</sup>を行<sup>さいし</sup>るとき祭司<sup>을</sup>의長<sup>을</sup>學者<sup>을</sup>および長老<sup>としより</sup>等<sup>ども</sup>きたりて)

나. 공통 어휘군에서 제외된 어휘들의 변화

여기에서는 이수정역과 명치역의 공통 한자명사 72개 중 구역과 대정역의 공통 한자명사 22개에 들어가지 못한 40여개가 양쪽 성서에서 각각 어떤 변화를 겪는가를 조사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졌다. 하나는 구역이나 대정역 어느 한쪽에 남게 되고, 다른 하나는 번역어가 다른 것으로 바뀐다. (20)(21)이 한국어 구역에서 확인된 결과이고, (22)(23)이 일본어 대정역에서 확인된 결과다.

(20) 구역에 잔존하는 것(10):

고향, 기도, 유전, 세리, 부자, 문안, 지옥, 친속, 해용, 세상,

(21) 구역에서 번역어가 바뀐 것:

① 다른 한자어로 교체:

新約→언약, 貪婪→탐욕, 凶殺→살인, 褻瀆→훼방, 迫害→핍박, 財貨→지리, 声名→소문, 苦難→지난, 嗣子→유업, 緘黙→잠잠, 颶風→광풍, 使徒→데즈, 祭司→제스장, 聖書→성경, 聖靈→성신, 預言者→선지즈, 心中→중심, 默然→잠잠, 野蠻→석청,

② 고유어로 변환:

- a. 蝗虫→메뚜기, 墓間 →무덤, 鄉村→마을, 磽地→돌작밭, 盜竊→도적질, 衣服→옷,
- b. 香藁→향기로운 기름/ 靑草→ 푸른 풀/ 芥種→계즈 씨/ 勇者→힘센 사람/ 備節日→예비하는 날/ 偽善者→외식하는 자/ 惡念→악한 생각/ 除酵節→무교병 먹는 절/ 奧義→오묘한 것/ 苟合→악한 생각/ 上座→눅흔 자리/ 日夜→밤에..낮에..

즉, (20)의 ‘고향’을 비롯한 9개의 한자명사는 한국어 구역에서 그대로 잔존했고, 나머지 30여개는 다른 한자어로 교체되거나 고유어로 변환되었다. 다른 한자어로 교체된 데에는 ‘성경, 성신, 선지즈’처럼 BC역이 아닌 중국어 다른 저본 문리역(1854)을 차용한 데에서 기인한 것들도 보인다<sup>8)</sup>. 한편 ‘蝗虫’을 ‘메

쪽이'로 하고, '靑草'를 '푸른 풀'로 바꾸는 등 고유어나 구(句) 형태로의 변환도 자연스럽게 발생하는데, 변화과정을 일본어와 비교했을 때 가장 큰 특징은 다른 한자어로의 교체가 많다는 점이다. 이것은 명치역에서 대정역으로 역본변환에 따른 일본어 성서의 번역어를 추적한 다음 자료와의 비교로부터 확인되었다.

(22) 대정역에 잔존하는 것(16):

聖靈, 祭司, 預言者, 聖書, 使徒, 偽善者, 奧義, 默然, 日夜, 靑草, 備節日, 野蜜, 磽地, 迫害, 除酵祭, 芥種,

(23) 대정역에서 번역어가 바뀐 것(12):

① 음독한자어로 교체(5):

新約→契約, 問安(あいさつ)→敬礼, 上座(かみざ)→上席, 稅吏(みつぎどり)→取稅人, 盜賊(ぬすびと)→強盜,

② 고유어로 변환(25):

- a. 親屬→親族みうち, 盜竊→窃盜ぬすみ, 貪婪→慳貪むさぼり, 凶殺→殺人ひとごころし,  
 b. 故郷→おのが郷, 香膏→香油にほひあぶら, 声名→噂, 鄉村→村々, 遺伝→言伝いひつたへ, 嗣子→世嗣せつぎ, 苦難なやみ→苦難くるしみ, 颶風おほかぜ→颶風はやて, 勇者→強き者, 衣服→衣, 世上→世, 心中→心, 貨財→財貨, 海戎→海綿うみわた, 惡念→惡しき念(おもひ),  
 c. 褻瀆→瀆, 蝗虫→蝗, 祈禱→祈り, 墓間→墓,

일본어 대정역에 남아있는 전회의 한자명사 (22)는 음독어만이 아니라 「靑草」 같은 훈독어, 「野蜜」 같은 훈종어가 망라되어 있으며, 일본어에서 한자어의 정착과정과 관련해 역시 주목해야 할 것은 훈독어였던 「迫害」와 「除酵祭」 등이 음독어 「はくがい」「じょかうさい」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한편 번역어가 바뀐 (23)의 경우는 음독한자어로 바뀐 것과 고유어로 교체된 것 등이 있으나, 음독어로의 교체가 적었다는 점이 한국어와의 차이로 나타났다. 특히

8) '성경'의 경우를 보면 BC역에서는 '聖書'로, 문리역에서는 '經'로 번역되어 있었다. 이것이 한국어 구역에서 이수정역의 '聖書'를 '聖經'으로 개역한 배경이 된다. 聖書云工師所棄之石成為屋隅之首石 vs. 經云工師所棄之石成為屋隅首石

음독어가 다른 음독어로 교체된 것은 (23)①에서 보듯이 「新約」이 「契約」으로 바뀐 것밖에 없고 나머지는 혼독한자명사가 음독어로 교체된 것으로 그러한 예가 5개에 검출되었다. (23)②에는 음독이나 혼독이라는 수용방식을 불문하고 저본에 있었던 한자어를 일본어 고유어로 수정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3)②a에서는 음독으로 수용한 저본의 한자어를 훈으로 읽을 수 있는 한자어로 교체하고 있으며, (23)②b에서는 훈으로 수용한 저본의 한자어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수정하면서 해당 한자어의 의미를 전달시키고 있다. 한편 (23)②c는 저본의 2자(字) 한자어를 1자 한자어로 바꾸는 변화로, 이것 역시 혼독한자어에 대한 일본식 수용방식 중 하나다. 이런 것들은 한자수용과정에서 한자와 가나(仮名)문자를 혼용하는 일본어에서는 불가피한 고심의 흔적이라고 판단된다.

다. 추가된 공통 한자어의 출처

여기에서는 구역과 대정역에서 새롭게 추가된 공통 한자명사 18개의 출처를 규명해 보았다. 조사방법은 해당하는 한자조어가 이전 역본인 이수정역과 명치역에서 각각 어떤 형태를 띠었는가를 살펴서 그 한자명사를 먼저 생성시킨 역본을 출처로 잡는 방식을 취했다. 예를 들어 구역과 대정역에 새롭게 등장한 공유 한자명사 ‘屍體’는 예문 (24)에서 보듯이 저본 BC역과 명치역에서는 ‘屍’였고 이수정역에서 ‘屍體’였던 것으로부터 출처를 한국어 성서로 보았다. 그러나 (25)의 ‘新郎’은 다르다. ‘新郎’은 혼독한자어였지만 명치역에서 먼저 모습을 보였고, 한국어 구역은 그것을 음독해서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4)(25)의 예문은 각각의 근거를 저본인 BC역을 포함한 전회 역본과의 비교를 통해 보여주는 것이고, 별도로 각각에 해당하는 그 밖의 한자명사를 조사해 함께 제시했다. 괄호 안은 마가복음의 장절과 비교대상인 성서에 나타난 번역어이다.

(24) 요한의 제자들<sup>제자들</sup>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스<sup>장스</sup>히니라(6:29)

ヨハネの弟子たち<sup>きた</sup>聞きて來り、その屍體<sup>しかばね</sup>を取りて墓<sup>はか</sup>に納めたり<sup>をさ</sup>。

(其門徒聞之則至取屍葬於墓)

(弟子 | 듣고와서屍體를 가져다가墓의葬히니라)

(ヨハネの弟子等この事を聞て來り其屍<sup>しかばね</sup>を取て墓<sup>はか</sup>に葬りぬ)

屍体(6:29屍), 犠牲(12:33 礼物), 寡婦(12:43 嫠婦), 貴人(6:21 尊き人)、証  
 拠(14:55, 証)

(25) されど新郎はなむこをとらるる日きたらん、その日には断食せん。(2:20)

신랑이 리별홀 날이 니를터이니 그 날에는 금식홀지니라  
 (惟將來之日新郎者別之去斯時必禁食矣)

(將來かれら新郎はなむこをとらるる日きたらん其日には断食すべき也)

(將來날에장가든者 | 離別호고같이씨에는飲食을禁호리니)

新郎(2:20장가든者), 能力(5:30能ちから흥), 苦難(9:12苦楚くるしみ), 智恵(12:33意), 榮光  
 (13:26榮華), 農夫(12:1원두한),

이상의 분석결과를 보면 (24)의 ‘屍体’를 포함한 5개 한자명사는 한국어 이수 정역에서, (25)의 ‘新郎’를 비롯한 6개 한자명사는 일본어 명치역에서 먼저 생성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국어 ‘신랑’ ‘능력’ ‘고난’ 등은 일본어 혼독어인 「新郎」 「能力」 「苦難」 등을 음독어로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다음 6개 공통의 한자명사는 이수정역과 명치역만의 비교로는 출처확인이 되지 않았다.

(26) 계명 · 誠命いしめ(7:9), 살인 · 殺人ひたごころし(7:21), 부활 · 復活よみがへり(12:18), 찬미 · 讚美さんび(14:26),  
 강도 · 強盜かうたう(14:48),

### 3.2. 구역과 대정역에서 개역개정과 신공동역으로

가. 공통 한자명사 74개의 출처

구역과 대정역의 공통 한자명사 39개가 개역개정과 신공동역으로 들어와 74개로 다시 급증했고, 다음 (표2)는 이들 공통 한자명사 74개의 출처를 보여준다.



(표2) 개역개정과 신공동역의 공동안자조어 출처

구역 및 大正訳에 있던 한자명사	새로 추가된 한자명사
福音, 智恵, 姦淫, 長老, 十字架, 父母, 姉妹, 農夫, 地震, 四方, 天地, 讚美, 強盜, 証人, 會堂, 沒藥, 榮光, 兄弟, 弟子, 復活, 罪人, 安息日, 22	使者, 準備, 聖靈, 天使, 權威, 中風, 冒瀆, 權能, 永遠, 祕密, 迫害, 誘惑, 先生, 地方, 會堂長, 少女, 故鄉, 親戚, 保護, 機會, 使徒, 幽靈, 安心, 市場, 預言, 貪欲, 盲人, 預言者, 地獄, 創造, 祝福, 異邦人, 真理, 税金, 唯一, 生活費, 全部, 飢饉, 主人, 食事, 香油, 準備, 約束, 感謝, 証言, 死刑, 要求, 滿足, 敬礼, 海綿, 洗礼(バプテスマ), 建物(たてもの), 52

(표2)에서 보듯이, 공통의 한자명사 74개 중 22개는 전회의 구역과 대정역에서도 일치하던 것들이고, 52개는 개역개정과 신공동역에서 새로 추가된 것들이다. 양적 증가 외에, 전회의와의 비교에서 나타나는 변화의 특징은 공통의 한자명사 대부분이 음독한자명사라는 점이다. 물론 「罪人」은 그대로 훈독어로 남아있고, 음독어였던 「安息日」이 훈종어 「あんそくび」로 어종변환을 보였고, 새로 추가된 것에도 「洗礼」나 「建物」같은 것이 있지만<sup>9)</sup>, 전회의 훈독어에서 음독어로 된 「復活」을 포함해 나머지 공통의 한자명사 전부가 음독어라는 것은 주목할 만한 변화이다.

나. 공통 어휘군에서 제외된 어휘들의 변화

구역과 대정역에서 공유했던 한자조어 39개 중 개역개정과 신공동역에 들어가지 못한 17개의 변화과정을 앞의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분석했고, 언어별로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7)(28)이 한국어에 관한 것이고, (29)(30)은 일본어에 관한 것이다.

(27) 개역개정에 잔존하는 것(14) : 신랑, 생명, 환난, 혈루, 능력, 귀인, 시체, 계명, 살인, 고난, 과부, 증거, 포도주, 포도원,

9) 대정역에서 「洗礼(バプテスマ)」는 「バプテスマ」로만 표기되어 있었다.

(28) 개역개정에서 번역어가 바뀐 것(3):

- ① 다른 한자어로 변환(2) : 희생(犧牲) → 제물, 꾀계(詭計)→흉계,
- ② 고유어로 변환(1) : 상좌(上座)→윗자리,

(29) 신공동역에 잔존하는 것(1) : 上座

(30) 신공동역에서 번역어가 바뀐 것(16) :

- ① 貴人→有力者、証拠→証言、患難(なやみ)→艱難、屍体(しかばね)→遺體、殺人(ひとごろし)→殺意、詭計(たばかり)→計略、血漏(ちろう)→出血、
- ② 新郎はなむこ→花婿、生命いのち→命、能力ちから→力、誠命いましめ→戒め、苦難くるしみ→苦しみ、
- ③ 犠牲いけにえ→いけにえ、寡婦やもめ→やもめ、葡萄酒→ぶどう酒、葡萄園→ぶどう園、

위의 분석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구역과 대정역에서 개역개정과 신공동역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한국어 개역개정은 3개를 제외한 구역의 나머지 한자어 모두가 그대로 수용하는데 반해, 일본어 신공동역에서는 「上座」 단 1개를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바뀌고 있다. 일본어에 나타난 변화의 대부분은 훈독한자어에서이고 변화의 특징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음독어의 증가이며, 또 하나는 표기의 변화다. 일본어 (30)의 ①을 보면, 대정역에서 음독어였던 것이나 훈독어였던 것 모두가 신공동역에서 음독어로 교체되고 있어, (표2)에서 본 일본어 한자어의 변화추세와 일치한다. 물론 (30)의 ②③처럼 예외적인 것도 보인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변화의 방향이나 원인이 가늠된다. 가령 (30)의 ②는 일본어 훈독한자어의 표기에 대한 변화배경을 보여준다. 「花婿」를 제외한 훈독명사 나머지는 한자조어를 포기하고 한자 하나로 표기시키는 등 훈독어의 표기에 변화를 보였다. (30)의 ③은 1945자라는 상용한자의 제한으로 발생한 변화다. 즉 ‘犠牲’이나 ‘葡萄’ 등이 상용한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표기상의 변화이다. 한편 이러한 변화과정에서 3-1에서 확인되었던 ‘貴人, 屍体, 犠牲, 寡婦’ 등 한국어 쪽에서 먼저 만들어진 한자조어 상당수는 다른 것으로 교체된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다. 추가된 공통 한자어의 출처

개역개정과 신공동역에서 새로 등장한 51개의 공통 한자명사는 각각 한국어와 일본어 성서 중 어느 쪽에서 먼저 모습을 보였는가를 ‘3-1.다’와 동일한 방식으로 추적해 보았다. 따라서 읽는 방법도 ‘3-1.다’와 동일하다. 예를 들어 개역개정과 신공동역의 공통 한자명사 (31)의 ‘使者’는 전회 역본 한국어 구역에서는 ‘스자’로, 일본어 대정역에서는 「使<sup>つかひ</sup>」로 번역된 것을 근거로 한국어 성서 쪽에 출처를 두었다. 그러나 (32)의 ‘權威’는 제시된 자료에서 그 반대의 과정을 밟고 있어 일본어 성서를 출처로 보았다. 51개 공통 한자명사 중 한국어 성서에서 먼저 출현한 것은 예문(31) ‘사자’와 함께 제시된 14개였고, 출처를 일본어 성서에 두어야 할 것들은 예문(32)의 「權威」를 포함해 함께 제시된 18개였다. 괄호 안은 비교대상 성서에 나타난 어형이다.

(31)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1:2)

預言者イザヤの書にこう書いてある。「見よ、わたしはあなたより先に使者を遣わし、あなたの道を準備させよう。

(볼지어다 내가 내 스자를 네 압헤 보내리니 더가 네 길을 예비하리라)

(『視よ、我なんぢの顔<sup>かほ</sup>の前に、わが使<sup>つかひ</sup>を遣す、彼なんぢの道<sup>みち</sup>を設くべし』)

使者(わが使), 天使(御使), 先生(師), 親戚(親族), 保護(?), 機會(期よき日來る), 安心(心安かれ), 貪慾(慳貪<sup>むさぼり</sup>), 地獄(ゲヘナ), 故郷(おのが郷), 創造(開闢), 洗礼(バプテスマ), 主人(主<sup>ぬし</sup>), 權威(權威)

(32) 言った。「何의 權威で、このようなことをしているのか。だれが、そうする權威を与えたのか。」 (12:28)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何의 權威をもて此等の事をなすか、誰が此等の事を為すべき權威を授けしか』と言ふ。)

(굴으더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행하며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어 이 일을 행하게 하더냐)

權威(권세), 中風(반신불수병), 永遠(영영), 迫害(핍박), 少女(계집 으희),

使徒(데즈), 市場(저즈), 預言(미리 말한 것), 盲人(쇼경), 異邦人(이방 사람), 唯一(혼분), 飢饉(흉년), 食事(음식), 香油(향기름), 海綿(희융), 建物(집), 聖靈(성신), 預言者(선지자)

한편 구역과 대정역의 비교만으로는 확인이 되지 않는 번역어가 17개 있어서 한국어 개역(1956)과 일본어 구어역(1954)을 대조했고, 그 결과 (33)의 6개 한자명사의 출처가 확인되었다. 조사결과 ‘會堂長’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 5개 한자어가 일본어 대정역에서 먼저 모습을 보이고 있어 출처를 일본어쪽에 두었다. 그러나 나머지 (34)의 번역어 11개는 일본어 구어역과 한국어 개역에서도 공통적으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본고에서 선정한 성서자료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았음을 밝혀 둔다.

(33) 會堂長(會堂司), 真理(참), 税金(세), 感謝(사례), 敬礼(문안), 要求(구하다),

(34) 準備, 祕密, 誘惑, 地方, 幽靈, 祝福, 生活費, 全部, 約束, 死刑, 滿足,

이상 두 번의 개역과정을 통해 한국어성서와 일본어성서에서 공통되었던 한자명사의 변화를 정리하면 이렇다. 첫째, 공통 한자명사에 나타나는 변화의 특징은 결국 일본어 음독어의 증가추세에 있었다. 1차 조사에서는 공통된 음독어 비율이 한자명사 39개 중 23개로 약 60%였으나, 개역개정과 신공동역으로 가면 공통 한자어 74개 중 70개가 음독어로 나타나 그 비율이 95%정도로 급증했다. 둘째, 개역과정에서 공통 한자어에 들어가지 못한 것들을 언어별로 추적한 결과다. 한국어는 1차 개역과정에서 저본의 한자명사를 다른 한자명사로 바꾸는 변화가 두드러졌으나, 2차 개역과정에서는 한자명사에 변화가 거의 보이지 않았다. 반면에 일본어는 저본의 한자어 수용에 음독 외에 훈독이라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 바, 한국어와는 달리 2차 개역과정에서도 어종 및 표기에 다양한 변화를 보이면서 음독한자어가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셋째, 개역과정에서 새로 추가된 공통 한자어의 출처에 관한 조사결과다. 확인된 것만 제시하면, 1차개역에서는 한국어 성서에서 5개, 일본어 성서에서 6개가 각각 먼저 출현해 새로운 한자어에 대한 상호의존의 폭은 크지 않았다. 2차 개역에서도 한국어 성서에서 15개 그리고 일본어 성서에서 23개가 각각 먼저 발견되면서 일본에서 생성된 한자에 대한 한국의 의존도는 예상치를 밑돌았다.<sup>10)</sup>

## 4. 나가기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어와 일본어 성서의 마가복음 최초 번역본부터 최근 번역본까지 각기 시대가 다른 세 쌍의 역본을 자료로 통시적 관점에서 두 언어가 공유했던 한자명사의 변화를 추적해 보는 것이었다. 주된 관심은 공유 한자명사의 어휘량 변화와 그 변화가 보여주는 특징을 추적해 보는 것이었다. 본고는 이 목적을 위해 한자명사라는 범위에 일본어 음독한자명사만이 아니라 어종이 다른 일본어 훈독 한자명사와 한자로 표기된 혼종어까지 대상에 포함시켰다. 본 연구에서 비교자료가 된 역본은 1차로 중국어 BC역과 이수정역 그리고 명치역이고, 2차 역본은 한국어 구역과 일본어 대정역이었다. 마지막 3차 역본은 한국어 개역개정과 일본어 신공동역이었다.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비교대상 역본별로 나타난 고유 한자어의 양적 변화다. 1차자료에서 두 역본에 일치하는 한자명사는 72개였고, 그 중 66개는 중국어 저본인 BC역의 한자어를 그대로 수용한 것들이었다. 이것은 동일한 한자문화권에서 중국어 저본을 번역하는 과정에 보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여겨진다. 1차의 72개였던 공통 한자명사가 2차자료에서는 39개로 급감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러한 변화는 저본에서 수용한 한자명사를 각각의 언어권에 맞는 다른 명사로 교체하는 데에서 기인했다. 한국어는 다른 한자명사로의 변화가 많았고, 일본어는 음독어가 훈독어로 교체되거나 훈독한자명사의 표기변경 등 고유어의 변화가 활발했다. 그러나 3차 비교역본에서는 공통한자명사가 다시 74개로 또 다시 급증하는데, 주된 원인은 훈독한자어의 음독화 등 일본어 한자명사에 나타난 음독어의 절대적인 증가에서 찾아진다. 한편 각각의 개역과정에서 새로 추가되는 공통 한자어의 출처는 일본어 성서가 우선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지만, 한국어 성서에서 먼저 발견된 것도 많이 보였다. 이것은 현재 사용되는 한자어의 절대다수가 일본어에 의존하고 있다는 종래의 학설과 구별되는 점이다.

10) 박영섭(1995, p94)은 현재 우리 나라에 유입 통용되는 용어 90% 이상이 일본에서 만들어졌거나 번역된 어휘로 보았으나, 이번 마가복음의 번역사를 통해 본 것은 한정된 자료라는 원인도 있겠지만 꼭 그렇지는 않았다.

## 【참고문헌】

(성서)

-중국어-

新約全書文理訳(문리역, 1854)

브리지만-컬버트슨역(BC역, 1864)

-한국어-

이수정(1885), “마가전 신약 복음서언회”

이수정(1887). “마가의전 혼복음서언회”

개역성경(1956)

주관신약전서(旧訳, 1911)

개역개정(1998)

-일본어

明治訳(1887)

大正訳(1917)

口語訳(1954)

新共同訳(1988)

朴英燮(1995), 国語漢字語彙論, 박이정, p94.

대한성서공회(1993), “대한성서공회사 I”, p27.

関根文之助(1982), “聖書のことばと日本語”, 福永書店, p12.

門脇 清・大柴 恒(1983), “日本語聖書翻譯史”, 新教出版, p107.

松本隆(2015), ‘明治文語訳マルコ伝福音書とその口語改訳版の用事用語を比較するための基礎資料’, “日本研究センター教育研究年報4”

안증환(2016), ‘한일양국 초기 성서번역과정 비교’ “日本文化學報68”

논문 투고 일자 : 2018. 01. 08.

논문 심사 일자 : 2018. 01. 31.

게재 확정 일자 : 2018. 02. 05.

< 要 旨 >

聖書の翻訳過程で出てきた韓日の共有の漢字語の変化推移  
 -マルコによる福音書の翻訳史を中心に-

安増煥

本稿では翻訳の時期が異なる韓国語聖書と日本語聖書との「マルコによる福音書」を資料にして、両国で共有する漢字語の変化を追跡した。資料とした聖書の訳本は1次資料が李樹廷による「マルコによる福音書」(1885)と日本の明治訳、2次資料は韓国の旧訳(1911)と日本の大正訳そして3次資料は韓国の改訳改正(1998)と日本の新共同訳(1988)である。

研究結果をまとめると次のとおりである。まず比較対象の訳本ごとに出ている量的な変化である。1次資料で見つかった共有の漢字語は72語であって、そのうち66語は中国語の底本のBC訳の漢字語をそのまま受け取ったものであった。それは同一の漢字文化圏に属している韓国と日本が同じ底本の聖書を翻訳したわけである。ところが、1次の翻訳本で72語であった共有の漢字語が2次の比較資料では39語の急減する。聖書翻訳をそれぞれの言語文化に合わせて改訳する過程の出た変化であろう。しかし、それが3次資料の比較からは再び74語に急増してしまう。3次資料での変化は日本語において音読みする漢字語が急激に増えたところに原因があることがはっきりとされた。

The Development of Changes in the Korean-Japanese Common Nouns of Chinese Characters Shown in the Process of the Bible Translation

An, Jeong-Whan

This paper has traced the changes of Chinese characters used in common in the two countries based on Mark Gospel with a different translation period between Korean and Japanese. The Mark Gospel that I first used is Mark Gospel(1885) by Soo-jung Lee and Meiji version(1887) of Japan, the second one is Old Testament(1911) of Korea and Taisvo version(1917) of Japan, and the third one is Reversion(1998) of Korea and The New Interconfessional Bible(1988) of Japan.

The research finding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t is about quantitative changes of common Chinese characters shown in each translation version of the comparison target. 72 shared Chinese characters have been found in the first research, but 66 of them have intactly accepted the Chinese characters translated in BC, the original text which is written in Chinese. This is regarded upon the spontaneous result because Korea and Japan belonging to a cultural area of chinese characters translated the Bible based on the same original text which is written in Chinese. However, the first 72 common nouns of Chinese characters sharply dropped to 39 in the second research. This is due to the change shown in the process of translation in accordance with each language culture. However, as a result of comparing the third research with the second one, I have found that Chinese characters used in common increased to 74 again. I think that this change, above all, was caused by a sharp increase in Chinese characters read by sound in Japanese.